전남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콘크리트 개발

건축학부 이방연 교수팀, 산업부산물·셀비지 사용으로 섬유보강 콘크리트 경제성도 높여

전남대학교 이방연 교수팀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다.

전남대는 건축학부 이방연 교수 연구팀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건축·건설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빌딩 엔지니어링(Journal of Building Engineering'(영향력지수 7.144, JCR 상위 6.16%) 6월호에 실렸다.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단점인 낮은 인장강도와 변형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건설재료이다. 하지만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kg당 3~6만원의 합성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경제성으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산업부산물과 폐기되던 셀비지(원단에서 잘려나가는 부분)를 사용해 8% 이상의 변형 성능을 보이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량도 줄였다.

이방연 교수는 "개발된 건설재료 기술은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물의 회복탄력성, 내구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포토뉴스

청암대 '고교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선정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전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고교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청암대는 전라권역 고교 장애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천=조순익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2023기아챌린지 사업' 후원

드림 토크&문화콘서트, 국악난타 등에 1억6천만원 후원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가 9일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재능 육성을 위한 '2023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10년째 후원 중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누적 후원금만 13억3000만원에 이른다.

올해 기아챌린지는 드림 토크&문화 콘서트, 어린이 국악난타, 찾아가는 예술랜드, 수상한 과학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드림 토크&문화콘서트는 올해 총 6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광주지역 청소년 36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난타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40명이 참여하고, 12월 제작발표회 있을 예정이다.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술랜드는 15개 지역아동센터 300여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수상한 과학교실은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해 진행되며 올해 2차례 26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다.

이날 후원금 전달행사는 광주 남구 숭의중에서 진행됐고, 광주시교육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숭의중에 1억6000만원이 전달됐다.

숭의중 학생 540여 명과 함께 제1회 드림 토크&문화콘서트도 진행됐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 겸 가수인 하상욱씨의 유쾌한 강연도 이어졌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챌린지 사업을 통한 경험이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긍정적 성장에 도움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김동진 광주대 총장 광주고향사랑 100만원 기부

김혁종 전 광주대학교 총장 서거 1주년을 맞은 9일 김 전 총장의 자녀들이 광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과 누나 김유진 씨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유진씨는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광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주사랑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동생인 김동진 광주대 총장의 이름을 새겨달라"며 광주예술의전당 네이밍도네이션을 선택했다.

네이밍도네이션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 기탁한 사람이 희망하는 이름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객석에 새겨주는 것이다. 이름은 기부자는 물론 희망하는 가족·연인·친구도 가능하다.

전남에 거주하는 김갑용 광주대학교 부총장도 이날 50만 원을 기탁, 고향사랑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오는 16일 재개관하는 광주예술의전당 객석에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광양시여성상친회, 중마동 취약계층에 물품 후원 광양시여성상친회가 중마동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쌀, 라면, 화장지를 기탁했다. 후원 물품은 쌀 250kg, 라면 25박스, 화장지 30롤 25개로 130만원 상당이며, 중마동은 관내 사는 저소득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광주교육연수원 'IB로 그리는 미래교육' 연수

다양성 품은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직무연수

광주교육연수원이 지난 10일 관내 교원 90명을 대상으로 'IB로 그리는 미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11일 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육연수원 '운영중점'인 '다양성을 품은 교원 성장 연수 운영'의 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현장 교원이 직접 디자인한 교육과정을 공모·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기획됐다. IB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약어로 스위스 국제학교협회와 유네스코가 협력하에 만든 3~19세 학생 대상의 초·중등교육과정이다.

이번 연수는 'IB교육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다양성을 품은 광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균형적·통합적 안목 형성에도 목적을 뒀다.

첫 강의는 'IB 우리의 미래교육' 저자인 서울반포고 하화주 교감의 'IB 교육의 이해'에 대한 주제로 이뤄졌다. 이어 IB 프로그램의 특징과 수업 설계 등 'IB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됐다. 현장에서 접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선주 기자

노화주민자치위원회, 풍어·안녕 기원 '노슬풍어제' 개최

"풍족한 어족 생산·무사고와 행복 함께하길"

완도 노화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완도 노화전통시장에서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노슬풍어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한해 풍어와 어업인들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철 도의원, 박재선 군의원, 박주영 파출소장, 소경근 해경소장, 김영락 번영회장, 서정우 우체국장, 문철인 소안수협조합장, 김영무 청년회장, 박은준 생활체육회장, 서종기 생활안전회장, 박철수 의용소방대장, 노경자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전남도 무형문화제 제59호 가야금병창 예능 보유자'이자 사단법인 매헌 전통예술보존회 김은숙 이사장으로부터 "노슬풍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시작으로 의식이 진행됐다.

이날 이철 도의원은 축사에서 "노슬풍어제로 인해 어민들의 풍족한 어족생산과 예방을 통해 무사고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노화읍민들의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선 군의원의 축사도 있었다.

/완도=이두식 기자

"주민 참여가 시민눈높이 행정 원동력"

광주주민자치연합회 총회…김명기 대표회장 취임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총회와 회장단 이·취임식이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시의원·임택 동구청장·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임원과 97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경과보고, 이임사와 취임사, 축사, 강기정 시장의 시정현안 공유를 위한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97개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30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다.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 주민자치사업과 공익사업 실행 등 주민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펼친다.

연합회 신임 회장단은 김명기 대표회장, 김용섭·김창열·김동수·전창현 공동회장, 김대영 사무총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 간이다. /김도기 기자

순천소방서,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 수여

순천원예농협 박광희·서동휘 팀장, 식당 화재 초기 진압

순천소방서는 식당화재를 목격하고 이를 초기에 진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박광희, 서동휘 팀장은 지난 5월 31일 배송업무 중 순천시 남정동 소재의 마트 맞은편 식당에서 화재가 난 것을 목격 후 인근 건물들의 소화기를 모아, 소방차 도착 전 상가 시민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한 공을 인정받아 순천소방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소화기가 부족해 쉽사리 진압이 어려워 보여 맞은편 마트로 달려가 소화기를 가져 오는 등 신속한 판단력과 기지를 발휘 했다.

식당 인근에는 다수의 상가들이 인접해 있어 자칫 인근 건물들로 화재가 크게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이웃 건물에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를 들고 용감하게 초기진화에 나서준 표창대상자에게 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경찰서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 현판식

노인 대상 범죄 사전 방지·실종 시 골든타임 확보 노력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광양경찰서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치매극복선도기관'은 기관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광양경찰서는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 전 직원이 2차례에 걸쳐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게 된다.

정재봉 광양경찰서장은 "광양시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환자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노인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